



## 「제망매가(祭亡妹歌)」의 의미(意味)와 형상(形象)

---

저자 (Authors)	양희철
출처 (Source)	<a href="#">국어국문학 102</a> , 1989.12, 241-261 (21 pages) <a href="#">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02</a> , 1989.12, 241-261 (21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국어국문학회</a>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4848">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4848</a>
APA Style	양희철 (1989). 「제망매가(祭亡妹歌)」의 의미(意味)와 형상(形象). 국어국문학, 102, 241-26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9 10:31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祭亡妹歌」의 意味와 形象

楊 熙 喆\*

- |                    |                    |
|--------------------|--------------------|
| I. 序               | 2. 生死 世界의 不二       |
| II. 指示副詞와 比喩       | IV. 追薦과 儀式歌의 意味 形象 |
| 1. 指示副詞의 營齋의 意味    | 1. 營齋의 狀況과 意思疏通    |
| 2. 比喩의 意味作用        | 2. 言表內의 行爲와 追薦     |
| III. 죽음 旅路語와 生死 超越 | V. 結               |
| 1. 죽음 旅路語의 文彩      |                    |

## I. 序

「제망매가」는 『삼국유사』의 <월명사 도솔가>조에 다음의 관련 설화와 부기를 수반하면서 전한다. <明又嘗爲亡妹營齋 作鄉歌祭之 忽有驚颺吹紙錢 飛學向西而沒>의 관련 설화와, <明常居四天王寺 善吹笛…羅人尙鄉歌者尙矣 蓋詩頌之類歟 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非一>의 부기이다. 이들 관련 설화와 부기의 감통성에 의지했던, 아니면 작품의 비유나 後句에 의지했던, 「제망매가」는 많은 찬사를 받아왔다. 그리고 이들 찬사는 작품의 비유법, 서정성, 구조, 의미 등등의 선행 연구들을 촉발시키는 동시에 영향을 주어왔다. 그 결과 향찰의 해독에서는, 정확한 음가의 표기라는 문제를 제외하고, 의미의 문제로만 보면, <次吟伊道>만이 문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작품의 내용은 <망매에 대한 애도> 또는 <애도의 종교적 승화>라는 데에 거의 일치를 보이고

\* 청주대.

있다.<sup>1)</sup>

이렇게 거의 일치점들을 보이고 있는 듯한 선행 연구들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앞의 관련 설화와 선행 연구<sup>2)</sup>에서 살필 수 있듯이 「제망매가」는 ‘死後 追薦의 儀式歌’이다. 그런데 그 작품 연구에서 저 의식을 얼마나 고려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말을 바꾸면 「제망매가」가 불리어진 상황을 얼마나 고려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저 의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때에, 「제망매가」의 의미는 다분히 피상적으로 흐를 소지를 갖게 된다. 특히 저 작품에 포함된 지시부사들의 의미가 그렇다. 게다가 이 여파는 작품의 서정성, 구조, 의미, 그리고 심지어는 해독 등등에까지 파급될 소지를 갖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저 金東旭 博士님의 ‘死後 追薦의 儀式歌’라는 언급과 작품을 연결시키면서, 문헌학적·신수사학적 방법으로 「제망매가」의 意味와 그 形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부차적이지만, <次吟伊邐>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자 한다.

1) 어학적인 해독 연구를 제외하고, 대표적인 문학적 연구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金宇鍾, ‘鄉歌와 土着語의 이미지 : 月明師의 엘레지를 中心으로’, 『現代文學』 142호(서울: 現代文學社, 1966. 10), 18~26면.

金烈圭, ‘祭亡妹歌의 生死路 : 國文學 그 故鄉에의 思想的 回歸’, 『讀書生活』 4호(서울: 讀書新聞社, 1976.3). 『韓國文學史』(서울: 探求堂, 1983), 265~286면.

趙鍾業, ‘淺論 “祭亡妹歌” : 特히 意味構成을 中心으로’, 『韓國詩歌研究 : 白江徐首生博士還甲紀念論叢』(서울/대구: 螢雪出版社, 1981), 39~51면.

朴魯亨, 『新羅歌謠의 研究』(서울: 열화당, 1982), 180~197면.

金承璨, 『新羅鄉歌研究 : 景德王代를 中心으로』(부산: 第一文化社, 1987), 86~101면.

2) 金東旭, 『國文學概說』(서울: 民衆書館, 1961), 31면.

———, 『國文學史』(서울: 日新社, 1987), 49면.

## II. 指示副詞와 比喩

본장에서는 「제망매가」의 지시부사가 지시하는 대상을 검토하고, 비유의 기능을 살펴며, 그 결과로 「제망매가」에서 가장 난해한 <次 跨伊遣>의 해독 문제도 점점하고자 한다.

### 1. 指示副詞의 營齋의 意味

작품의 <此矣> <此矣 彼矣>의 해독에서, 그 표기의 형태는 다양하다.<sup>3)</sup> 그러나 그 의미는 <이에(여기)> <이에 저에(여기 저기)>로 모두가 일치한다. 그런데 저들이 지시하는 대상을 살핀 글들은, 이 절에서 보겠지만, 작품의 상황과 괴리된 듯하다. 이런 점에서 본절에서는 저들 지시부사들의 영제적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 1) 此矣와 生死路

<生死路>의 해독 형태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살고 죽는 길>로 통일되고 있다. 이 의미만을 생각하면, 어떤 의문점도 부상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이 <生死路>는 월명사의 누이가 이 세상에서 죽는 찰나의, <살고 죽는 길>의 뜻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리고 이에 따라 <此矣>도 그의 누이가 죽는 찰나의 임종 순간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그런데 이 <生死路>와 <此矣>의 저 해석을 <爲亡妹營齋 作鄉歌祭之>와 관련시켜 생각하면, 하나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즉 저 해석의 시간·장소가 재의 시간·장소와 괴리된다는 점이다. 적어도 월명사의 누이가 <현생에서 살고 죽는 길(生死路)>을 <此矣>라 말하려면, 월명사는 그의 누이가 임종하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爲亡妹營齋>의 재로 볼 때에, 월명사는 누이가 임종하는 장소에 있지 않고, 그의 죽은 누이를 위해 재를 올리는 장소에 있다. 이런 점에서 <生死路>

3) <此矣>의 해독은 <이에, 예, 이위, 어긋, 어의, 이위>등의 형태로, <此矣 彼矣>의 해독은 <이에 더에, 이에 저에, 이위 더위, 어긋 더긋, 이의 더의, 이이 더이>등의 형태로 매우 다양하다.

와 <此矣>를 임종 순간과 연결시켰을 때의 시간·장소는 재의 시간 장소와 괴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괴리는 <生死路>와 <此矣>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 피게 한다. 이 살핌에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爲亡妹營齋>의 齋라는 불교 의식이다.

<爲亡妹營齋>의 재와 관련된 불교 의식으로, 사십구재(七七齋 혹은 中陰法事)라는 것이 있다. 사십구재는 죽은 자가 中有<sup>4)</sup>에서 일곱 번 반복되는 생사 동안에, 그가 빨리 좋은 緣處를 얻도록 그의 친속들이 追福과 追善<sup>5)</sup>을 닦아주는 의식이다.

이 사십구재와 관련시켜서 <生死路>와 <此矣>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즉 <生死路>는 <中有에서 태어나고 죽는 길>이다. 그리고 <此矣>는 월명사가 그의 죽은 누이를 위해 사십구재를 올리는 시간이며, 동시에 그의 누이가 중유에서 태어나고 죽는 시간이다.

이렇게 <生死路>와 <此矣>를 해석하고 나면, 작품의 <此矣>라는 시간과 관련 설화인 <爲亡妹營齋>의 시간이 일치한다. 왜냐하면 작품의 <此矣>는 월명사가 재를 올리는 시점인 동시에 그 누이가 중유에서 태어나고 죽는 길의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生死路>는 임종 순간의 살고 죽는 길이 아니라, 중유에서 태어나고 죽는 길이다. 그리고 <此矣> 역시 현생에서의 임종 순간이 아니라, 중유에서 태어나고 죽는 순간이며, 동시에 월명사가 그의 누이의 추천을 위해 재를 올리는 시점이다.

이같은 <生死路>와 <此矣>의 새로운 의미는 <次胎伊遺>의 해독에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次胎伊遺>는 초기에 <저회고>로 해독되었다. 그러다가 지현영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이래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sup>6)</sup> 그런데

4) 現生과 當生の 중간 果報를 뜻하며, 中陰이라 하기도 한다.

5) 追善은 俗字이고, 追薦은 典語이다.

6) 이들 논란으로 빚어진 난맥상은 다음과 같다. <저회고>(小倉濰平, 김태준, 양주동), <저홀이교>(성열모), <즈홀이교>(지현영), <어줄잇고(어찌렀고)>(이탁), <마이자팔이교(멈춰터러고)>(김선기), <즈홀이교(죽고)>(김준영), <멈호리견>(서재극), <머뭇그리고>(김완진) 등과 같이 다양하다.

이렇게 많은 논란을 불러온 선행의 해독들은 그 공통의 해독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그 앞의 〈生死路〉와 〈此矣〉의 의미를, 누이의 임종 순간과 관련시켜서 파악한 배경이다. 이 배경으로 인해 〈次聆伊遺〉를 죽음의 공포와 연관시켜서 해독하여 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폈듯이, 〈生死路〉와 〈此矣〉의 의미는 저들 해독들이 취한 것과 전혀 다르다. 이 다른 점들이 〈次聆伊遺〉의 새로운 해독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저 해독을 확정하게 한다.

먼저 차자법적으로 저 〈次聆伊遺〉를 보자.

〈次〉는 그 훈이 〈버그다〉<sup>7)</sup>이고, 그 명사형은 〈버굴이〉<sup>8)</sup>이다. 이들 훈과 명사형을 이용하여 〈次聆伊遺〉를 해독하면 〈버굴이고〉가 된다. 이 때 〈버굴이고〉의 의미는 〈다음이고〉이다. 이렇게 해독할 때에, 〈— 聆(홀)—〉의 음이 글과 다름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고대 국어에서 보이는 ㅎ과 ㄱ의 교체로 생각된다. 그 예로 막을을 표시하는 〈홀〉과 〈골〉을 들 수 있다.

이렇게 〈次聆伊遺〉를 해독하고 나면, 작품의 의미는 새로운 각도에서 문맥의 일치를 보인다. 즉 〈(중유의) 생사로는 이( : 누이 자신의 중유라는 현재의 시간이며, 동시에 월명사가 재를 올리는 현재의 시간)에 있으며 다음이고, (과거의 임종 순간에는) 나는 가나다 말도 못하고 갔느냐〉이다. 말을 바꾸면, 중유의 생사로는 현생의 죽음 순간에는 당면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문제로 미루고, 현생의 당장은 현생의 죽음만이 두려워서 나는 간다고 말도 못하고 갔느냐 하는 질문이다.

이런 문맥의 일치와 관련 상황 및 차자로 보아, 〈次聆伊遺〉는 〈버굴이고(다음이고)〉로 해독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2) 此矣 彼矣

7) 이 三聖이시니 그럴시 文殊의 버그시니라 : 是爲三聖故 次文殊(圓覺上一之二69).

버근 ㅎ나홀 通何 두 가질 월오 : 次一通破二種(圓覺上一之43).

8) 버글 [圓] 버금. \* 버글 부 : 副(訓蒙中1). 버글시 : 貳(訓蒙下33) (南庚祐編, 『補訂 古語辭典』, '버글'조).

〈此矣 彼矣〉는 지금까지 나무잎이 지는 장소의 〈이에 저에(여기 저기)〉이면서, 동시에 월명사와 그의 누이가 위치한 〈이에 저에(이승 저승)〉로 생각되어 왔다. 그런데 저 해석을 따르면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그 하나는 〈浮良落戶〉의 시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로 인해 월명사는 죽어서도 이승에 머무는 문제이며, 마지막은 문맥 자체의 모순이다.

먼저 앞의 문제를 보자. 작품의 해당 부분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같이 한 부모에 낳고 가는 곳을 모른다는 의미이다. 이 의미에서 이에 저에는 잎이 앞으로 질 장소이지, 지금 잎이 저 있는 장소가 아니다. 이 점을 선행 연구들은 간과하고 있다. 이 간과도 문제이지만, 이로 인해 두번째의 문제도 제기된다. 만약 이에와 저에가 이승과 저승이라면, 월명사는 앞으로 죽어서도 이승에 머물게 된다. 왜냐하면 잎이 앞으로 저서 이에 저에 떨어지듯, 월명사는 이승에 지고 누이는 저승에 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마지막의 문맥 자체의 모순 문제를 보자. 저 문맥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이승 저승에) 떨어질 잎같이 한 부모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져〉이다. 이 때 이에 저에가 이승 저승이라면, 월명사와 누이는 죽어서 앞으로 이승과 저승으로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저 문맥은 가는 곳을 모른다고 말한다. 이는 분명히 문맥의 모순이다.

이런 세 가지 문제점들로 볼 때에, 〈此矣 彼矣〉에 〈이승 저승〉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此矣 彼矣〉에 포함된 의미가 무엇일까를 다시 살펴야 한다. 그런데 이 해석에도 〈爲亡妹營齋〉의 재와 중유의 세계가 도움을 준다.

중유에서 인간의 中陰身은 칠 일을 일기로 태어났다가 죽는다. 연처를 얻지 못하면, 여섯번까지 태어났다가 죽고, 마지막 일곱번째에 태어나서 연처를 얻게 된다. 이런 중유의 생사를 고려하면, 재를 올리고 있는 월명사는 그의 누이가 중유에서 태어났다가 죽는 일을 몇 번이나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연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그 가는 곳을 모르기에 빨리 좋은 연처를 얻도록 기원할 뿐이다. 이렇게

가는 곳을 모르기에 작품은 가는 곳을 모른다고 노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此矣 彼矣>는 그의 누이가 증유에서 죽어가는 이곳과 다시 태어나는 연처인 저곳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此矣 彼矣>를 해석할 때에 작품의 문맥은 일관성을 보인다. 즉 나무잎이 이에 저에 떨어져 가는 곳을 모르듯이, 월명사는 그의 누이가 증유에서 이에 죽어가는지 저 연처에 가서 낡는지를 모른다. 이런 점에서 <이에 저에>는 나무잎이 지는 이곳과 저곳인 동시에, 그의 누이가 죽어가는 증유의 이곳과 다시 낡는 연처의 저 곳이라 할 수 있다.

## 2. 比喩의 意味作用

본절에서는 「제망매가」의 직유와 은유가 보여 주는 그 의미 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隱喩와 父母觀

「제망매가」의 은유어는 <一等隱枝>의 枝이다. 이 <가지>라는 은유의 매개어가 <부모>라는 은유의 취의를 취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저 은유는 흔히 볼 수 있는 직유의 형태를 일탈시키면서까지 구사된 수사이다. <얼음같이 마음이 차다>는 일반적인 직유에서, 저 매개어 얼음의 세계와 저 취의 마음의 세계는 서로 다른 사물의 세계이다. 이런 직유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작품의 직유 형태는 저와 다른 특수 형태이다. 비교의 매개점 같이 앞부분도 나무의 세계이고 뒷부분도 나무의 세계이다. 이런 직유의 특수 형태는 부모를 가지로 은유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는 왜 직유의 일반 형태를 일탈시키면서까지 저 은유를 구사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은유는 단어가 가진 의미소들을 변형시킨다. 그리고 그 변형을 통해 기존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를 표현한다. 이때 의미소들의 변형은 매개어와 취의가 가진 교점(intersection)의 의미소들만을 취하고, 이외의 의미소들을 버리는 행위이다.

<가지>의 의미소들에는 비생식·무자애·생명·무보호·식물·생로병사 등등이 있다. 그리고 <부모>의 의미소들에는 생식·자애·생

명·보호·동물·생로병사 등등이 있다. 이들 두 어휘의 교점 의미소들은 일단 생명·생로병사 등이다. 그런데 이들 교점의 의미소들 외에도 또다른 것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일상적인 부모의 의미소들로 저 부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정리하면, 생식·동물 등의 동물적인 것과 보호·자애이다. 따라서 저 부모는 동물적 성격과 보호·자애의 의미소를 포함하지 않고, 생명·생로병사의 의미소만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부모의 의미는 월명사가 가진 그 특유의 부모관이다. 그리고 이런 부모관을 강조하기 위해 앞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직유의 형태를 일탈시키면서 저 은유를 구사했다고 할 수 있다.

## 2) 直喩와 未知의 說明

이번에는 직유로 설명되는 부분을 보자. 이 부분의 문제는 직유의 기능 문제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저 기능은 둘로 갈린다. 그 하나는 시적 구상화로 의미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의미소들의 변형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시적 구상화는 물론 既知의 事實로 未知의 事實을 밝힘으로 의미를 강조한다. 그러나 의미소들의 변형에 의한 새로운 의미의 형상에는 기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 직유에는 시적 구상화와 논리 변형적 비교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설명의 한 종류인 비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 논리 변형적 비교(metalogical comparison)와 은유적 비교이다. 논리 변형적 비교에서, 그 단어들은 일상적이고, 어휘 약호와 일치한다. 이로 인해 이 비교는 비교하는 내용과 비교되는 내용을 문면에서 보여준다. 이 예가 <호수가 맑듯이 그의 마음이 맑다>이다. 이에 비해 은유적 비교는 그 단어들이 비일상적이고, 어휘 약호가 불일치한다. 이로 인해 이 비교는 비교하는 내용과 비교되는 내용을 함께 문면에서 보여주지 않는다. 이 예에 <그의 마음은 호수와 같다>가 속한다.

이런 비교의 두 종류로 작품의 직유를 보자. 작품 직유의 전반부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지리다>의 변형이다. 그리고 저 직유의 후반부는 <한 부모에 나고 가다>의 변형이다. 이들 전후반

부의 어느 부분에도 비밀상적인 것이 없이 일상적이다. 그리고 어휘 약호가 일치한다. 게다가 비교되는 내용과 비교하는 내용이 모두 문면에 나타난다. 따라서 저 적유는 논리 변형적 비교라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저 적유에는 의미소들의 변형에 의한 의미 형상이 없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동시에 저 적유에는 추상의 구상화와 既知의 사실로 未知의 사실을 밝힘에 의한 의미 강조가 있음을 말해준다.

중유에서 누이가 반복해서 죽거나 연치를 얻는 것은, 종교적 믿음의 세계로, 추상적인 미지의 사실이다. 이에 비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의 세계는, 익히 체험한 구상적인 기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저 적유는 가을 낙엽의 세계라는 구상적인 기지의 사실로 중유에서 누이가 거듭 죽거나 연치를 얻는다는 추상적인 미지의 사실을 밝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 적유에는 추상의 구상화와 기지의 사실로 미지의 사실을 설명함에 의해 의미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불교 因明論<sup>9)</sup>의 비유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제망매가」의 작자인 월명사가 불승이란 점에 기인한다.

喩有二種 一者同法 二者異法

具云譬喩 譬比也 喩曉也 卽以近事比類 令於深法得曉了故 無著云 喩者見邊義 謂以所見邊與所未見邊和合正說 名之爲喩 師子覺云 所見邊者 謂已顯了分 未所見邊者 謂未顯了分 以顯了分 顯未顯了分 令義平等 所有正說 名爲立喩…<sup>10)</sup>

인용에서 살필 수 있듯이, 인명론의 비유에는 동법과 이법 즉 同喩와 異喩가 있다. 이들은 모두가 기지의 사실로 미지의 사실을 밝힌다. 인용의 所見邊·顯了分은 기지의 사실이고, 所未見邊·未顯了分은 미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기지의 사실로 미지의 사실을 드러내는 추정은 인명론의 비유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제망매가」의 적유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저 「제망매가」의 적유는 불교 일반의 비유로 보면, 八喩 중에서 現

9) 불교의 논리학이다.

10) 王肯堂 集釋, 『因明入正理論集解』.

喩에 해당한다.

…三 現喩 以現前事爲喩也 如說衆生心性 猶如獼猴<sup>11)</sup>

인용에서와 같이, 現喩는 현전사인 기지의 사실로 비유한다. 인용의 비유 같으면, 獼猴의 心性이란 기지의 사실로 비유한다. 이는 「제망매가」의 직유에서 매개어 비교점 <같이>의 앞부분인 낙엽지는 가을의 기지 사실로 비유하는 것과 같다.

이런 사실로 볼 때에, 「제망매가」의 직유는 인명론의 비유와 관련된 현유이며, 서구의 개념으로는 논리 변형적 비교이다. 그리고 그 기능은 의미소들의 변형에 의한 의미 형상이 아니고, 현전사인 구상적인 기지의 사실로 추상적인 미지의 사실을 밝힌다. 따라서 추상의 구상화와, 기지 사실로 미지의 사실을 밝힘 등을 수반한 의미 강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 III. 죽음 旅路語와 生死 超越

본 장에서는 죽음 여로어의 文彩와 작품의 내면에 깔린 생사의 대립과 초월의 사고를 검토하고자 한다.

#### 1. 죽음 旅路語의 文彩

「제망매가」에 등장한 죽음 여로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죽음의 길과 관련된 시어들이다. 다른 하나는 죽음의 장소와 관련된 것들이다.

##### 1) 죽음의 길과 관련된 시어들의 文彩

이에 속하는 시어들로 다섯 개가 있다. ①生死路 ②去內如 ③去內尼叱古 ④浮良落尸 ⑤去奴隱 등이다.

이들 중에서 ② ③ ④ ⑤는 작품에서의 위치와 그 성격상 <죽다>라는 기본 의미의 변형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죽다(死)>를 써서, ②死內如 ③死內尼叱古 ④死良落尸 ⑤死奴隱 등으로 쓰지 않고, 작품의 ②

11) 『涅槃經』二十九(『佛學大辭典』, '八喩'조에서 재인용).

③ ④ ⑤와 같이 <가다(去)>를 쓰고 있다. 이는 월명사의 의도라 생각된다. 즉 죽음의 단절성과 종착성을 피하고, 가다의 지속성과 여로성을 강조하는 의도이다. 다시 말해 죽음이 세상의 종말이고 종착이라는 의미를 피하고, <가다>로 죽음 곧 끝이 아니라 인생의 지속이며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는 문체로 생각된다.

이런 사실은 ① ④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①의 生死는 낡고 죽음이 아니다. 그리고 이 때의 죽음은 단절성과 종착성에 연결된다. 그런데 生死路의 路는 작품에 없어도 그 의미는 통한다. 그렇지만 저 路를 生死에 붙여 씀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저 生死에 路를 붙이면, 저 생사는 路에 의해 단절성과 종착성을 극복하고 지속성과 여로성을 얻는다. 왜냐하면 路는 지속성과 여로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④의 浮良落尸도 마찬가지이다. 浮良落尸는 落尸만 있어도 그 의미는 작품에서 잘 통하게 되어 있다. 즉 <있이 지다> <뿔이 지다>에서와 같이, <이에 저에 질 있처럼>이면 충분하다. 그런데도 浮良落尸로 씀에는 <떨어질>을 충실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뜨다(浮)>의 의미를 강조하여 죽음의 지속성과 여로성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뜨다>의 의미는 중간에 위치한 상태로 지속성과 여로성을 얻는다. 이런 점에서 浮良落尸 역시 죽음의 단절성과 종착성을 지속성과 여로성으로 바꾼 문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월명사는 「제망매가」의 죽음의 길과 관련된 시어들에서 죽음의 단절성과 종착성을 지속성과 여로성으로 바꾸는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시어들은 1~8행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 2) 죽음의 장소와 관련된 시어들의 文彩

이번에는 죽음의 장소와 관련된 시어들의 文彩를 보자. 이에 속하는 시어들로 ①此矣 彼矣 ②去奴隱處 ③彌陀刹 등이 있다.

이들 죽음의 장소들은 ① ②에서 지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지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 ① 此矣 彼矣 : 중유에서 죽어가는 여기와 얻어가는 연처의 저기.
- ② 去奴隱處 : 누이가 중유에서 죽어가는 곳 내지 연처.

이들을 보면, 한결같이 중유의 장소를 지시하는 말이다. 그런데 지시어는 주어진 상황이 명확하거나 자명할 때에 쓰인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은 그 주어진 상황이 그렇게 명확하지도 자명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작품은 중유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지시부사를 쓴다. 이는 영원한 住處가 아닌 중유의 장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문체라 할 수 있다. 지시부사를 통한 완곡어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는 곳의 표현 역시 구체적으로 가는 곳의 하나인 중유를 피한 표현이다. 이 역시 영원한 주처가 아닌 중유를 회피하고자 한 문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③의 彌陀刹은 앞의 ① ②와 달리 그 정확한 장소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① ②의 회피적 문체와는 반대로 자신의 소망을 직접 언급한 소망적 문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월명사가 죽음 여로어를 시행상 특이하게 문체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8행에서, 죽음의 길과 관련된 시어들이 죽음의 단절성과 종착성을 극복하고 지속성과 여로성을 획득케 하고, 죽음의 장소와 관련된 시어들이 중유를 회피케 한다. 그리고 9~10행에서, 죽음의 장소와 관련된 시어는 직접 언급되는 소망적 문체이다.

## 2. 生死 世界の 不二

「제망매가」의 생사 세계는 매우 독특하다. 그렇다고 월명사의 죽음관이 세속적이란 말은 아니다. 이를 살피고자 먼저 월명사가 보는 생사의 세계를 보고, 다음으로 그 세계의 대립과 해소를 검토하고자 한다.

### 1) 월명사가 본 생사의 세계

불교의 죽음 세계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그 가장 큰 기준은 中有(中陰)의 인정 여부이다.

又云中有 死此生彼 中間所受之陰形也 陰者五陰之陰(新譯云五蘊) 俱舍宗以爲有一定之中陰 成實宗以爲無之 大乘宗以爲有無不定 謂極善極惡之人 無中陰 直至所至 餘皆有之...<sup>12)</sup>

12) 『佛學大辭典』, '中陰'條.

위 인용에서 보면, 불교의 종파에 따라 중유를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구사종은 일정한 중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成實宗은 중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대승종은 중유의 유무가 부정하다고 생각한다. 즉 극악 극선의 사람에게는 중유가 없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중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실들과 <爲亡妹齋>를 연결하여 생각하면, 월명사는 구사종 또는 대승종에 속한, 말을 바꾸면 중유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월명사는 중유에 있는 누이가 좋은 연처를 빨리 얻도록 영제하면서 「제망매가」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월명사가 중유의 존재를 믿었다고 할 때에, 그가 생각하는 생사 세계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現 生			中 有	當 生
生 有	本 有	死 有		

이로써 일단은 월명사가 생사 세계에서 중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生死 世界の 對立 解消

「제망매가」의 내면에는 생사의 대립을 극복하는 해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작품에 나타난 죽음은 생사로 짝을 이룬다. 현생에서의 생사와 중유에서의 생사이다. 현생의 생사는 <一等隱枝良 出古> <去內如> <去內尼叱古>에서 발견되고, 중유의 생사는 <生死路> <浮良落尸> <去奴隱>에서 찾아진다. 이들과 유추되는 것이 봉별이다. 이는 <逢乎>와 누이와 월명사의 이별에서 찾아진다. 이들은 死:生::別:逢이라는 두 대립의 유추를 보인다.

이 대립의 유추에서, 만남이 생사 대립의 해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 만남을 가능케 하는 것이 중개자 道이다. 이 도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생사 不二라는 깨달음이다.

앞의 죽음 여로어의 문채에서 보았듯이, 월명사는 죽음과 남 모두

에서 단절과 지속을 보고 있다. 이 중에서 지속이 곧 생사가不二라는 것을 가능케 하는 도의 내용이다. 즉 남은 인생 여로의 지속이다. 그리고 죽음도 인생 여로의 지속이다. 따라서 남과 죽음은 지속이라는 점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생사의 초월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제망매가」의 내면에 스며 있는 대립의 유추는 死:生: :別:逢이며, 저 생사 대립의 해소자는 만남이고, 이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생과 사가 그 지속에서不二라는 道이다.

#### IV. 追薦과 儀式歌的 意味 形象

지금까지 「제망매가」의 의식가적 의미와 그 형상을 정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살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영재의 상황과 의사소통의 관계를 밝히고, 이어서 작품의 의식가적 의미와 그 형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 1. 營齋의 狀況과 意思疏通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망매가」는 사십구재의 재가이다. 이 영재에서 월명사는 「제망매가」를 지어서 재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의 누이는 이 때에 중유에서 저 「제망매가」를 포함한 追薦供養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 저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은 분명하다. 즉 월명사 일방적이지만, 「제망매가」로 그의 누이에게 추천을 요구하는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명확한 의사소통이지만, 좀더 자세한 검토를 요한다. 왜냐하면, 선행 연구들이 저렇게 명확한 추천적 의사소통을 무시하고, 서정성의 의사소통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서정시는 그 작품의 작가 또는 시적 자아가 독자나 청자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제망매가」의 경우는 다르다. 앞의 영재 상황에서 보듯이, 추천공양의 대상인 누이와 월명사는 의사소통을 행하고 있다. 즉 월명사 일방적이지만, 그의 누이에게 중유의 생사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요구하는 의사소통이다. 이런 점에서 「제망매가」의 의사소통은 월명사가 그의 누이를 의식하며

추천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의사 소통은 순수 서정시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제망매가」의 의사 소통은 일반 의식가요에서도 확인된다. 절이나 교회의 의식가요는 그 의식의 대상인 부처님이나 하나님 그리고 의식에 관련된 대상들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한다. 이런 사실은 실제로 절이나 교회의 의식가요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만약 저 대상 의식이나 어떤 반응의 요구가 없다면 이는 이미 의식가요가 아니다.

이렇게 「제망매가」는 의식가요이고, 그 의식의 대상인 누이를 의식하고 추천을 요구하는 의사 소통이다.

## 2. 言表內的 行爲와 追薦

본절에서는 앞의 저 의사 소통이 어떻게 추천을 형상하고, 그 추천이 어떤 구조에 의지하는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1~4행을 보자. 이 부분에는 과거와 현재가 회감되어 있다. 월명사의 누이가 죽으면서 말도 못한 것은 과거이다. 그런데 이 과거를 월명사는 자신의 현재 시점에서 <중유의 생사로 는 이에 있으며 다음이고 나는 간다고 말도 못 이르고 가나났고>와 같이 현재로 회감시킨다. 이는 월명사가 재를 올리며 노래하는 현재와 그의 누이가 죽는 과거의 회감이다.

이 회감에서 월명사는 그의 의도를 언표내적(illocutionary)으로, 그리고 앞에서 살핀 시어들의 특성으로 표현한다.

1~4행의 명제적 내용은 중유의 생사로를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현생의 죽음이 두려워 나는 간다고 말도 못한 누이를 힐책하는 질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은 怨望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질문의 명제적 내용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영재의 상황과 연결되면서 언표내적 내용을 얻는다. 즉 저 질문은 중유에 있는 누이에게 던져지는 것이 되어, 지금도 현재 처한 중유의 생사로를 다음이라 생각하느냐가 된다. 이는 <그래 그렇게 아직 멀었다고 하더니 지금도 아직 멀었느냐?>와 같이, 이제 이 당면한 중유의 생사로 문제를 생각

해야 할 때가 아니냐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의 명제적 내용은 누이에 대한 힐책이지만, 그 언표내적 내용은 누이에게 그녀가 당면한 증유의 생사로를 당면 문제로 인식하라는 것이 된다.

이렇게 요구된 증유의 생사로 인식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으며, 그 인식의 세부적 지향점을 시어들의 문체로 제시한다. 1~4행의 죽음 여로어는 <生死路> <去內如> <去內叱古> 등이다. 이들은 앞에서 살았던 듯이, 죽음의 단절성과 종착성을 지속성과 여로성으로 바꾼 문체이다. 이로 인해 증유의 생사로 인식은 그 세부적인 지향점을 얻는다. 즉 저 증유의 죽음은 단절·종착이 아니라 지속·여로이다. 따라서 이 증유의 생사로에서 두려워서 집착하지 말고, 여행하듯 떠나야 하는 증유의 생사로 인식이다. 이는 간접적으로 빨리 연치를 얻으라는 명령과 같다.

이번에는 5~8행을 보자. 이 부분에는 현생의 과거와 증유의 현재가 현생의 현재에 회감되어 있다. 한 부모에 난 것은 현생의 과거이다. 그리고 이에 저에 떨어질 것과 같은 것은 누이의 증유의 현재이다. 마지막으로 저를 모르는 것은 월명사의 현생의 현재이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에는 현생의 과거와 증유의 현재가 현생의 현재에 회감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회감에서 월명사는 그의 의도를 언표내적으로, 그리고 앞에서 살핀 은유·직유·죽음 여로어의 문체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의 명제적 내용은 가을의 낙엽이 이에 저에 떨어지듯, 증유에서 누이가 이에 죽는지 아니면 저에 낳는지를 모르겠다는 감탄이다. 이로 인해 애상감을 운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명제적 내용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영재의 상황과 연결되면서 언표내적 내용을 얻는다. 즉 저 감탄은 증유에 있는 누이에게 던져지면서, 너는 증유의 생사로의 갈림길을 당면하여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이 된다. 이는 <네가 좋고 나쁜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 모르겠구나!>에서와 같이, 죽음인 이곳과 연치인 저곳의 갈림길에서 연치인 저곳을 택하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의 명제적 내용은 누이가 당면한 갈림길에서 택할 길을 모름이지만, 그 언표내적 내용은 연치라는 좋은

길을 선택하라는 요구가 된다.

이런 요구는 이 부분의 은유·직유·죽음 여로어의 문체로도 확인된다.

앞에서 작품의 은유가 갖는 독특한 의미 형상을 살폈다. 저 부모는 동물적 성격과 보호 및 자애 등의 의미소들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생명과 생로병사의 의미소만을 가졌다. 이는 저 부모가 보호성과 자애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는 중유의 생사로에 있는 누이에게 큰 경중을 준다. 즉 누이로 하여금 부모에게 보호나 자애를 요구하며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유의 다른 중음신과 함께 누이는 6세의 어린이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부모에게 보호와 자애를 요구하고, 그 결과 중유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작품의 부모에는 보호성과 자애성이 없다. 이를 누이에게 알게 할 때, 누이는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 결과 중유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이때 저 집착을 버림은 곧 연처를 얻는 길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은유는 연처의 길을 택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은유는 직유에 흡수되는데, 이 직유 역시 연처의 길을 택하게 한다. 이 직유는 앞에서 살폈듯이 시적 구상화와, 기지 사실로 미지 사실을 밝힘 등으로 의미를 강조한다. 이는 추상적이고 미지적인 것을 구상화하고 기지화한다. 이때 이런 의미 강조는 갈림길의 두 방향을 명확하게 하여 좋은 쪽을 택하게 하는 것이다. 즉 죽음인 이곳과 연처인 저곳을 명확하게 하여 연처인 저곳을 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주문은 죽음 여로어에서도 확인된다. 이 부분의 죽음 여로어에 <此矣 彼矣> <浮良落戶> <去奴隱處>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음의 단절성과 종착성을 지속성과 여로성으로 바꾼 문체와 중유의 직접 언급을 피한 문체였다. 이는 곧 죽음의 단절·종착성으로 인한 중유의 삶에 집착을 죽음의 지속·여로성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에도 담기 싫은 중유이기에 그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 빨리 중유에의 집착을 버리고, 연처의 길을 택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9, 10행을 보자. 이 부분에는 월명사와 누이의 미래와, 저 미래를 다짐하고 있는 월명사의 현제가 회감되어 있다. 남매가 미

타찰에서 만날 시간은 미래인 당생이고, 이를 위해 도를 닦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은 재를 올리는 현생의 현재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미래와 현재 또는 당생과 현생의 회감이라 할 수 있다.

이 회감에서 월명사는 그의 의도를 <待是古如>의 원망법 또는 의지적 다짐과, 죽음 여로어들의 문체로 표현하고 있다.

<待是古如>는 <기드라고다>로 해독된다. 이는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대표적인 수행적 동사이다. 이로 인해 9, 10행에는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도를 닦아 기다리겠다>는 다짐의 명제적 내용이 있다. 동시에 <내가 이렇게 누이 너를 미타찰에서 만나기 위해 도를 닦아 기다릴 것이니, 너도 빨리 미타찰로 오라>는 요구의 언표내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요구를 증유에 있는 누이에게 적용하면, 이는 간접적으로 빨리 연처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명령과 같다. 왜냐하면 그의 누이가 미타찰에서 월명사를 만나려면, 빨리 증유의 생사로를 벗어나서 연처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9, 10행의 죽음 여로어인 <彌陀刹>의 문체에서도 확인된다. 저 미타찰은 정확한 장소의 명사로, 이는 소망적 문체임을 앞에서 살핀 바가 있다. 이는 다른 죽음 여로어들에 비해, 바람직한 중국의 정착지로 생각된다는 점에서 누이의 빠른 연처 획득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에서, 「제망매가」의 의미와 그 형상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의미 즉 주제는 <증유의 생사로에 있는 누이에게 빨리 좋은 연처를 얻도록 하는 追薦>이다. 이 주제는 명제적 내용에 의해 직접 제시된 것이 아니라, 언표내적 내용에 의해 간접 제시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주제의 표현은 간접적이고 隱性的이다. 그리고 그 형상의 구조는 시간에서 크게 보아 순차적이고, 논리에서 점층적이다. 즉 4~8행의 현생의 과거를 제외하면, 월명사의 현생 현재에, 현생의 과거→증유의 현재→당생인 미래 등이 회감하는 순차적 구조이다. 그리고 증유의 생사로 인식의 요구→생사로에서 생로인 연처의 길 선택 요구→연처로 향한 행동 요구 등의 논리 점층적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제망매가」의 저 의미인 주제는 관련 설화와 부기의 내용에 부합한다. 저 주제는 명제적 내용이 아니라, 언표내적 효력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 내용은 언표내적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언표내적 행위는 언향적 행위(perlocutionary)를 유발한다. 이 언향적 행위는 「제망매가」에서 월명사의 누이가 증유의 생사로에서 빨리 좋은 언처를 얻는 것이다. 그런데 저 언향적 행위를 관련 설화가 보여준다. 즉 <忽有驚鸞吹紙錢 飛舉向西而沒>이다. 이 감동은 최소한 그의 누이가 더 이상 증유의 생사로에서 방황하지 않고 좋은 언처를 얻었음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는 월명사의 언표내적 행위가 그의 누이로 하여금 저와 같은 언향적 행위를 유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언표내적 행위의 감동성을 感動天地鬼神으로 부기한 것이라 생각한다.

## V. 結

지금까지 문헌학적·신수사학적 방법으로, 「제망매가」의 의미와 그 형상을 살폈다. 그 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을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1. <生死路>는 월명사의 누이가 이승에서 임종하는 순간의 <살고 죽는 길>이 아니라, 그녀가 증유에서 <놓고 죽는 길>이다.
2. <此矣>는 월명사의 누이가 임종하는 순간과 그 장소가 아니라, 그녀가 증유의 생사로에 처한 시간이며, 동시에 월명사가 그의 누이를 위해 제를 올리는 현재의 시간이다.
3.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次旌伊遺>의 해독은 1과 2로 인해 <버글이고(다음이고)>로 해독된다.
4. <此矣 彼矣>는 이승과 저승이 아니라, 월명사의 누이가 또 죽을 증유의 이곳과 그녀가 갈 緣處인 저곳의 의미를 갖는다.
5. 은유인 가지의 취의 부모는 일상적인 부모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생로명사의 의미소만 포함하고, 동물적 성격·보호·자애 등의 의미소들을 포함하지 않은 의미이다.
6. 직유 <어느 가을...가는 곳 모르온저>는 현유와 논리 병형적 비

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7. 작품의 죽음 여로어들은 죽음의 단절·종착성이 지속·여로성으로 바뀌고, 피하고 싶은 세계는 간접적으로 우회 표현되며, 바라는 세계는 직접 언급되면서, 월명사의 누이로 하여금 빨리 연치를 얻게 하는 문채이다.

8. 작품 내부의 두 대립의 유추는 死 : 生 : 別 : 遙이고, 생사의 대립은 遙에 의해 해소된다. 이 때 만남을 가능케 하는 것이 道인데, 이 道는 생과 사가 모두 지속이란 점에서 不二라는 것이다.

9. 작품의 의사 소통은 월명사가 그의 누이에게 언향적 행위를 일으키는 언표내적 행위이다.

10. 작품의 주제는 <중유의 생사로에 있는 누이에게 빨리 좋은 연치를 얻도록 하는 追薦>이다. 이는 김동욱 박사님의 단편적이지만 '死後追薦의 儀式歌'란 언급을 작품분석을 통해 입증한 것이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작품의 주제로 생각했던 <망명에 대한 애도>나 <애도의 종교적 승화>는 명제적 내용에 불과하다.

11. 작품의 주제는 언표내적 행위에 의해 간접적이고 은성적으로 표현되었다.

12. 작품의 시간적 구조는 크게 보아 현생의 현재에, 현생의 과거→중유의 현재→당생인 미래가 회감된 순차적 구조이다.

13. 작품의 논리적 구조는 중유의 생사로 인식의 요구→생사로에서 생로인 연치의 길 선택 요구→연치로 향한 행동 요구의 점층적 구조이다.

14. 월명사의 언표내적 행위로 발생한 누이의 언향적 행위는 <忽有驚聽吹紙錢 飛舉向西而沒>로 상징된다.

15. 그리고 저 언표내적 행위의 감통성이 <感動天地鬼神>으로 부기된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東旭, 『國文學概說』, 서울:民衆書館, 1961.  
——, 『國文學史』, 서울:日新社, 1987.  
金善琪, '누비굿 노래', 『現代文學』170호, 1969.2.  
金承燦, 『新羅鄉歌研究』, 부산:第一文化社, 1987.  
金烈圭, '祭亡妹歌의 生死路', 『讀書生活』4호, 1976.3.  
——, 『韓國文學史』, 서울:探求堂, 1983.  
金完鎮, 『鄉歌解讀法研究』, 서울:서울大學校出版部, 1980.  
金字鐘, '鄉歌와 土着語의 이미지', 『現代文學』142호, 1966.10.  
金俊榮, 『鄉歌文學』, 서울/대구:螢雪出版社, 1983.  
朴魯淳, 『新羅歌謠의 研究』, 서울:열화당, 1982.  
徐在克, 『新羅鄉歌의 語彙研究』, 대구:계명대출판부, 1975.  
梁柱東, 『古歌研究』, 서울:博文書館, 1943.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 서울/대구:螢雪出版社, 1982.  
李在銑, 『鄉歌의 理解』, 서울:三星美術文化財團, 1979.  
李 鐸, '鄉歌新解讀', 『한글』116호, 1956.  
鄭烈模, '새로 읽은 향가', 『한글』99호, 1947.  
趙鍾業, '淺論 祭亡妹歌', 『韓國詩歌研究』, 서울/대구:螢雪出版社, 1981.  
池憲英, '次盼伊遺에 대하여', 崔鉉培先生還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編, 『崔鉉培先生還甲紀念論文集』, 서울:思想界社, 1954.  
小倉進平, 『鄉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京城帝國大學, 1929.  
王肯堂, 『因明入正理論集解』.